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9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 (3)

유기적인 건축은 생명의 성장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주님은 몸을 관심하고 몸을 건축하는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심

성경: 골 2:19, 엡 3:17상, 4:4-6, 12-16, 계 12:11

- I.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은 생명의 성장에 의해, 곧 삼일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모든 지체들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난다 — 골 2:19, 엡 4:12-16.
- A.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이다 — 요 15:1-5.
1.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를 갈망하신다 — 고전 1:2, 12:12-13, 엡 1:22-23.
 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체이고, 유기체인 몸의 건축은 몸의 유기적인 성장이다.
 3.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은 사실상 성장이다. 교회의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 엡 4:15-16, 고전 3:6-7, 9.
 4. 우리가 유기적인 건축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 엡 4:16.
- B. 몸의 성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에 달려 있다 — 엡 4:15-16.
1. 몸이 머리를 붙잡음으로써 공급을 받을 때, 몸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란다 — 골 2:19.
 2. 몸이 자라는 것은 머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공급이 머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 엡 4:15.
- C. 몸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 — 골 2:19.
1. 하나님은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성장하게 하신다.
 2.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더해지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 고전 3:6-7.
 3.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 고전 3:6-7.
 - a.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다.
 - b.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뜻이다 — 롬 8:11.

- D. 에베소서 4장 16절이 계시하는 것은 온몸이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다.
1. 이것은 몸이 스스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이 몸을 자라게 한다.
 2. 그리스도의 몸은 공급하는 마디들과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에 의해 스스로 몸을 자라게 한다.
 3.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몸 스스로 몸을 건축하는 결과를 낳는다.
 4. 몸의 성장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건축되게 한다' — 엡 4:16.
 - a.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함께 몸의 지체 된 사람들을 사랑한다 — 요일 4:7-8, 10-12, 16, 19.
 - b.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이다.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 안으로 이끌어,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 엡 1:4, 2:4, 3:17하, 19상, 4:15-16, 5:1, 25, 6:24.

II.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 엡 3:17상, 4:4-6, 12, 16.

- A. 건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사람을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 엡 2:21-22.
- B.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다 — 엡 3:17상, 4:15-16.
- C.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신성의 요소와 인성의 요소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를 이루지만, 그 연결 안에서 각각의 요소는 여전히 구분된 채로 있는 것이다 — 눅 1:35, 각주 2.
- D.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시어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 요 14:20, 15:4-5, 엡 3:16-21, 4:4-6, 16.
 1.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달려 있다 — 엡 1:5, 9, 3:11.
 2.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시다 — 눅 1:31-35.
 3.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즉 하나님-사람이 되는 것이다 — 딤후 3:17.
- E.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확대, 곧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분의 확대이다 — 엡 1:22-23, 4:4-6, 16.
 1. 교회는 하나님-사람이시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확대이다 — 눅 1:35, 요 1:14, 12:24.
 2.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원칙의 확대이다. 이러한 확대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 엡 3:17상, 4:4-6.
 3. 복음서들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머리이신 분을 산출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확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했다 — 엡 1:22-23, 4:15-16.

- F.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들로 구성된 유기체인데, 바로 이 사람들의 영 안에 삼일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다 — 딤후 4:22, 롬 8:16, 고전 6:17.
- G.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연합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 엡 3:16-21.

III. 주님은 이기는 이들, 곧 몸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이들이 필요하시다 — 엡 1:10, 3:9, 4:12, 16, 딤펴전 1:4, 계 12:11.

- A. 이기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다 — 엡 4:16, 계 2:7하, 3:12.
- B.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위해 다시 돌아오실 수 없다 — 계 19:7-9.
- C.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곱 배로 강화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산출하신 이기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 히 8:1, 계 5:6.
- D.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모든 것을 이긴다 — 요일 2:18, 22, 빌 3:7-11.
- E. 이기는 이들은 활력화된 이들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다 — 삿 5:15, 계 3:19하.
- F. 이기는 이들은 몸을 보고, 몸을 알고, 몸을 관심한다 — 롬 12:4-5, 고전 12:12, 18, 24하-27, 엡 2:16, 4:4, 16, 골 2:19.
- G.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권익을 더 관심하는 이들이다 — 마 6:33.
- H. 이기는 이들은 주님을 위해, 회복을 위해, 몸을 위해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을 내린다 — 마 16:24, 계 3:18, 12:11, 14:1, 4.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교회의 생명의 방면과 건축의 방면

생명의 방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임

교회생활을 실현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참되게 체험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에 의해 분명히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정도까지 그분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문제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을 쓴 것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 사랑스러운 이들은 전통적인 신학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나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메시지들을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그들의 관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더 고려해 보려고 노력한다. 많은 경우 나는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의 가르침을 다시 점검해 본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나는 어떤 것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다시 점검해 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아라. 그 구절은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우리와 연합됨이 없이 먹을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닭고기를 먹는다면, 닭고기와 우리는 하나로 합해진다.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소화되어 우리와 연합된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새 예루살렘은 사면이 있고 각 면마다 세 개의 문이 있다(계 21:13). 이것은 3 더하기 4가 아니라 3 곱하기 4이다. 3이라는 숫자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4라는 숫자는 모든 피조물 중 으뜸인 사람을 상징한다(마 28:19, 겔 1:5, 10). 이 숫자들은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이 그림에 관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한 것은 1941년 내 고향에서였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나는 되돌아가 워치만 니 형제님의 글을 점검해 보았다. 니 형제님은 <영광스러운 교회> 에서 네 명의 여인에 대해 말했다. 즉, 창세기 2장의 하와와 에베소서 5장의 아내(교회)와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상(異象)에 나오는 우주적인 여자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린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다. 니 형제님은 이 네 여인이 사실상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로 구성된 한 실체를 상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워치만 니 전집, 재판, 제34권, 142-143쪽). 니 형제님은 마지막 여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더 이상 7이 아닌 12이다. 이것은 더 이상 3 더하기 4가 아니라, 3 곱하기 4이다. 곱해진 것은 완전한 결합으로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연합하실 때 그것이 12이다. 12는 완전한 결합의 수이다.”(183쪽) 니 형제님은 중국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교회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단지 일반적인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음식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해야 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결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소화하여 우리 몸의 조성 성분이 될 수 있는 음식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 합당한 질서가운데 있게 된다.

성경 전체에 걸쳐 생명과 건축물이 발견됨

생명과 건축물의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창세기 2장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한 귀한 재료들인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로 암시되는 건축물이 있다(9, 11-12절). 성경 끝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다시 한 번 생명나무와 귀한 재료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있다(22:2, 21:18-21). 마태복음 13장의 일곱 비유에도 생명과 건축물의 사상이 있다. 이 비유들에서 뿌려진 씨는 생명의 씨이고 자라서 밀이 된다(3-8, 24절). 심지어 겨자씨와 가루 서 말도 생명과 관계있다(마 13:31, 33). 다른 한편으로 땅에 숨겨진 보물과 아주 귀한 진주는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다(마 13:44-46).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경작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9-12, 16절). 경작지로서 우리는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고, 집으로서 우리는 건축될 필요가 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항, 곧 생명과 건축물을 본다.

교회의 신부의 방면과 건축물의 방면

구약에는 교회의 예표가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예표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범주는 여자이다. 여러 여자가 교회의 예표이다. 하와는 교회에 관한 첫 번째 예표이다(창 2:22, 3:20). 리브가도 교회의 예표이다(창 24:15, 64-67). 구약에서 긍정적인 여자들의 대부분은 교회의 예표들이다. 여자들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아담에게서 생명을 받았으며, 아담이 그녀에게 생명이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생명이시라는 것을 상징한다. 교회에 관한 두 번째 범주의 예표들은 하나님의 집과 장막과 성전과 심지어 성이다. 이 모든 것은 건축물과 관련이 있다.

에베소서에는 이 두 방면을 모두 담고 있다. 한편으로 에베소서는 우리가 집, 곧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한다(2:20-22). 다른 한편으로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내, 곧 그리스도의 배필이라고 말한다(5:25, 32). 배필로서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고, 집으로서 우리는 건축될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한 구절에 이 두 방면이 다 언급되어 있다. 이 구절은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라고 말한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건축되는 것은 건축물의 문제이다. 여기서도 생명과 건축물이 나온다.

생명의 성장은 건축을 위한 것임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지 자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장은 건축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의 방면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건축의 방면은 대부분 소홀히 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성장에 대해 말하고, 16절은 건축에 대해 말한다. 이 두 구절은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2장 19절은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마디들에 대해 말하고, 골로새서 2장 19절은 마디와 힘줄에 대해 말한다. 마디는 자양분 곧 공급을 위한 것이고, 힘줄은 함께 결합됨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필요가 있다. 만약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 안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더 받아 다른 이들을 공급할 수 있다. 몸 안에서 마디는 공급하는 지체들, 즉 다른 지체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지체들이다. 또한 몸 안에서 어떤 지체들은 함께 결합하는 힘줄이다. 힘줄이 없다면 모든 지체는 흩어지게 된다. 모든 지체가 결합되는 것은 여러 힘줄에 의해서이다.

교회의 건축은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함으로 이루어짐

위에서 언급한 구절들은 네 가지 범주에 대해 말한다. 즉, 머리와 마디와 힘줄과 지체들이다. 첫째, 우리에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안에서 자라야 하고, 머리 곧 공급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머리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아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해 주는 마디들이 있다. 셋째, 여러 힘줄이 있다. 이들의 주된 사역은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함께 결합하는 것이다. 많은 지체가 서로 결합되는 것은 힘줄에 의해 또 힘줄을 통해서이다. 넷째, 에베소서 4장 16절은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라고 말한다. 머리와 마디와 힘줄 외에 많은 지체가 있다. 머리도 마디도 힘줄도 아닌 많은 지체가 있다. 눈과 귀와 코와 손은 마디나 힘줄이 아니다. 이들은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몸의 지체들이다. 모든 지체에게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것이다. 그분 안에서 자라고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온몸이 건축되는 것은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 실행, 건축, 81-87쪽*)

몸을 보고, 몸을 알고, 몸을 관심함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내 고향 엔타이에서 교회를 일으키셨다. 어느 날 저녁 그곳의 교파들의 인도자들이 나를 초대해서, 나는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며 나를 칭찬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교회를 세운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내가 그곳의 여러 교파에 가서 매주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것을 제안했다.

나는 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있던 분열을 정당하게 여겼다고 믿는지 물어보았다. 바울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고전 1:12-13상, 3:4)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이 모든 분열적인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늘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가 여러분의 상태를 정당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하신 것은 그 무엇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결과로 얻은 새로운 믿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하나님께서 교파를 유죄 판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 새로운 믿는 이들을 그들의 교파로 보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회소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교파를 가리키는 모든 간판을 치워 버린다면, 나는 그날 밤 우리의 집회 장소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러면 분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아닌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전 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는 몸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교회들 안에는 자칭 장로들이 있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장로로 임명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만 성령에 의해서만 장로들이 임명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도들이 장로들을 임명했고, 결국 성령께서 그 임명을 인정하셨다고 말한다(행 14:23, 20:28).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몸을 합당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는 몸을 모르고 몸을 관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몸을 돌보고 몸을 관심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몸을 위해 있다. 몸의 지지와 회복의 지지가 없다면, 우리는 지방 교회들을 실행할 길이 없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지방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할지라도 몸의 조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지방의 교회는 지방 분과가 될 것이다.

회복은 몸을 위한 것이지만 어떤 개인이나 단순히 한 지방의 개별적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몸, 회복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문제들은 몸을 보는 것과 몸을 관심하는 것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진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몸을 관심하는 것이다. 몸은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몸이다. 우리가 진리로 돌아와 몸 안의 합당한 질서를 관심한다면, 몸은 즉시 더욱 강해질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한 가지, 곧 몸을 보지 못하고 몸을 알지 못하고 몸을 관심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우리는 몸을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하는 이기는 이, 활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결심함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회복을 위해, 몸을 위해 이기는 이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께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당신은 전진할 길이 없으십니다. 주님, 저를 이러한 이기는 이들 중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기는 이들은 몸을 보고, 몸을 알고, 몸을 위한다.

우리는 강한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 르우벤 지파의 몇 사람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드보라는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겠다는 명확한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삿 5:15). 사사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에 근거해서 기드온의 삼백 용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물을 손으로 떠서 입에 대고 마신 삼백 명은 자신의 생활의 필요를 관심하지 않았지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삿 7:4-7).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권익을 더 관심하는 이들이다.

한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일으킨 분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강한 결심을 해야 한다. “주님, 저는 진지하게 당신의 회복을 위해, 당신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당신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직업이며,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활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기를 실행해야 한다. 여러분이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당신의 회복을 위해, 당신의 몸을 위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신성한 조성체로 구성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당신의 지체가 되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의 몸이 건축될 수 있습니까? 제가 나가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몸을 위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몸을 위한 지체를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 강한 결심을 했다고 가정하자.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결심을 한 후, 여러분은 매주 두 시간 동안 사람들을 접촉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을 접촉하는 많은 방법이 있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도 매우 많다. 여러분은 매주 나가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지막 날, 여러분은 은행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그와 그의 온 가족을 얻게 된다. 여러분이 매주 두 시간 동안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매년 한 명의 사람을 남아 있는 열매로 얻을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의 환경이 다르고 또 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복음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고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백 명 중 사십 명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십 명 중 삼십 명이 매해 한 명씩 얻는다면, 이것은 삼십 퍼센트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럴 때 한 지방의 교회가 매해 삼십 퍼센트 증가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주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다(마 13:23).

매년 삼십 퍼센트의 증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증가이다. 여러분은 매주 두 시간, 매해 선두 번 나가는데 한 명도 얻을 수 없다고 믿는가? 나는 이렇게 실행하는 모든 사람이 매해 한 명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람들을 접촉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죄인들을 얻도록 활력적이어야 한다. 그들을 얻은 후에는 그들을 먹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믿는 이들을 먹이는 것은 그들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리고 우리는 그룹 집회에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상호적인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최근의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라이프 스타디는 우연히 나에게 생각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세기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축적한 결과이다. 나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새겨 주기 위해서 이것을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이들을 함께 모아 작은 활력 그룹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활력 그룹에서 그들은 서로 묻고 답함으로 서로 가르친다. 새로운 이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본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 침례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대답함으로써 본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한 후에는 그들도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이들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신언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높지만, 매우 실지적이고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길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며 또한 사람

을 필요로 하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성경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것도 발명해 낼 권리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그때 주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대적인 사탄을 패배시킬 길을 얻지 못하실 것이다. 사탄은 여전히 오늘도 이 땅에서 일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벧전 5:8). 그는 하늘에서도 활동적이다(욥 1:6).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이들이 그를 패배시키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12:10-11).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 심지어 틀에 박힌 방식으로 수행되는 주님의 회복 안의 교회생활도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 없다. 주님은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시다. *(교회생활 안에서 소요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 55-61쪽)*